



미국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 및 특징

김진억 수석담당역

■ 미국 보험회사는 회사별, 시대별로 상이한 부동산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음.¹⁾

- 미국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직·간접의 모기지 대출이 대부분이었으나, 지난 10년(2005~2014년) 동안 간접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의 투자가 증가되었음.
 - 특히, 부동산담보채권 유동화증권(CMBS: Commercial Mortgage-Backed Security)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유형이 다양화되었음.

■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패턴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.

- 부동산 투자는 직접보유(direct real estate holdings), 부동산 담보대출(CML), 부동산담보채권 유동화증권(CMBS),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(주로 Schedule BA), 부동산투자신탁(REITs) 등의 형태를 띠며.
 - 직접보유는 토지·건물의 실제 구매 및 소유를, CMBS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담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을,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는 재무제표에 별도 보고되는 장기투자 자산인 Schedule BA 항목으로 해지펀드, 벤처기업, 파트너십 등의 투자를 지칭함.
 - REITs는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음.

■ 보험업권별로 살펴볼 때,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규모가 가장 크며, 전통적 CML 투자와 CMBS 등 간접투자비중이 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.

- 미국 보험업권은 2005년 2,880억 달러에서 2014년 3,935억 달러로 CML에 투자한 바 있으며, 이 중 소수 대형사와 연금회사 주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CML투자의 97~99%를 차지함.

1) A.M. Best(2016. 1. 15), "Commercial Real Estate Exposure for Insurers - A Total Picture".

- 생명보험회사의 CML투자 비중이 큰 이유는 타 보험업권에 비해 장기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상 장기투자상품인 CML이 잘 부합되기 때문이며, 은행 등에 비해 손실도 낮음.

- CMBS의 경우 2005년 1,235억 달러에서 2014년 2,084억 달러로 투자가 증가하였고, 이 중 생명보험회사가 약 80%를 차지하고 있음.
-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14년 72.4%가 수익 목적으로 투자되었으며, 낮은 도심 공실률, 그리고 높은 임대수익률로 인해 투자수익률도 높아지고 있음.
-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3배가 증가하였으며, 이 중 생명보험회사의 투자비중이 2014년 68.7%를 차지하였음.
- 채권형 REITs의 경우 2014년 보험업권의 450억 달러 채권형 REITs 투자 중 생명보험회사가 84.9%를 차지한 반면 손해보험회사와 건강보험회사는 각각 13.1%와 1.9%를 차지함.

■ 건강보험회사의 경우, 부동산 관련 투자유형 중 직접 소유 형태의 투자비율이 특히 높았음.

- 건강보험회사의 투자자산 중 직접 보유 비중이 2005년 7.0%에서 2014년 10.0%로 보험업권 중 가장 높았음.
 - 건강보험회사는 직접 보유 부동산의 97%를 무수익 자산인 자사 건물로 이용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수익률은 낮으나 리스크 또한 낮음.

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짧은 만기로 여타 보험업권에 비해 부동산 투자 규모가 가장 작지만,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CMBS 및 부동산 대체투자, 그리고 주식형 REITs의 순으로 투자하고 있음.

- 손해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여타 보험업권에 비해 가장 작으며,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CMBS 투자가 최근 3년간 증가하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됨.
-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 비중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보험회사가 가장 크며 보험업권 전체 부동산 대체투자 비중이 2005년 21.0%에서 2014년 30.2%로 증가함.
- 한편 주식형 REITs 또한 다른 보험업권보다 투자비중이 높음.
 - 2014년 말 현재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권의 주식형 REITs 투자 중 52.3%를 차지한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41.0%, 건강보험회사는 6.7%를 각각 차지함.

■ 이를 종합해 볼 때, 미국 보험회사는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, 그리고 각 업권별 보험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동산관련 투자유형을 다양화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 [kiri](#)